

제목: "근심에서 믿음으로"

말씀: 누가복음 12장 22-34절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 1) 세상을 살면서 _____ 생겨난 걱정과 근심입니다.
- 2)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잘 _____ 있음을 알게 됩니다.
- 3)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_____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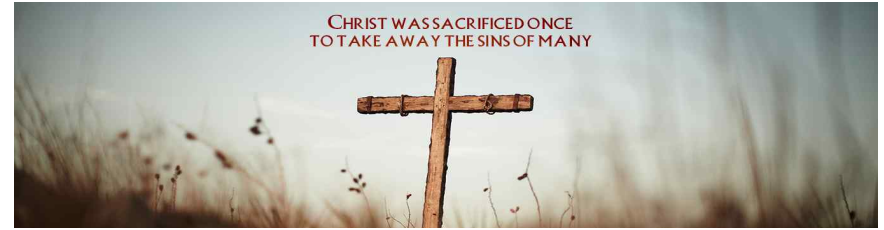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12장 22-34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12: 12-34 신약 115 페이지 President
- 말씀 "근심에서 믿음으로" 김성민 목사
 Message Moving from worry to faith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기울어지는 세대)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모습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익숙했던 만남들, 자주 했던 외식들, 시간이 가면 찾아갔던 자연, 그리고 내 개인의 생활 패턴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만남은 뒤로 미루어졌고, 외식은 되도록 삼가며 집에서 밥을 먹는다. 시간이 가면 갔던 산과 바다도 나가는 것이 두렵다. 그렇다고 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할 더 즐거운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다음 주는 조금 나아지려나? 아니면 다음 달은 새로워지려나? 하는 생각에 조그마한 소망을 걸어본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지난 2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패턴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목 잡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 즐겁게 참여하던 예배는 어떻게 되었고, 힘차던 찬양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어린이들이 찬양하며 율동을 배우던 우리의 교회 학교들은 어디에 있으며 주중에 모이던 어르신들의 모임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집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그런데 실은 그러한 일들이 지난 2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큰일이다. 이 모든 것이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광야에 외침도 없어졌고 가슴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살아날까?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외부 출입을 조심하며 집에서 웅크리고 있으면 저절로 회복이 될까? 하지만 전부 아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한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회복해야 한다. 세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회복과 발맞추어 우리의 신앙이 회복 될 리 없다.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회복해야 한다. 그 길만이 이러한 시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패턴이 되다가는 진짜 전부 죽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6-37절)이라고 하신다. 깨어 있어야 한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목 마른자의 마음을 사모해야 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앞드리고 살게 해 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야 한다. 여기 산다는 것은 육신의 살아남보다는 영적인 믿음의 살아남을 뜻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살아날 수 있다. 보트가 침몰하면 거기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 뛰쳐나와야 한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교회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2022년 2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한권 씩 받아 가셔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